

● 예후 불량 치아의 치료후 구강내 잔존에 대한 평가

한수부 · 김연중* · 이인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진단과

조사대상이 된 38개의 치아중 26개의 치아(68%)만이 저작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이 조사의 결과 예후불량 치아들이 치료후 장기간 유지될 수있음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치주적인 예후가 불량하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 치아는 발치되는데, 이의 가장 주된 이유는 예후불량 치아의 잔존이 인접치아의 치주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것이 아니었다.

Devore⁷⁾ 17명의 환자에게서 예후불량으로 진단된 17개의 치아를 수술한 3년후 방사선 사진에서 치조골의 수준을 조사하였을 때, 인접치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유지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Machtei²²⁾은 예후불량 치아를 치료않고 잔존시켰을 때에는 인접치아의 치주조직 파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우리들의 조사에서 치료후 예후불량 치아들이 치주낭의 감소와 치주부착 증가를 보여 계속 구강내에 유지될 수 있음을 보였고, 인접조직에 대한 영향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예후불량 치아의 치주낭 감소와 치주부착치의 증가를 고려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았으리라 짐작 된다. Pihlstrom²³⁾등은 4년간 조사에서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만으로도 치주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나, 치주낭 깊이는 7mm이상인 경우에는 Modified Widman flap술식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만으로도 상당한 치주낭의 감소와 치주부착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Pihlstrom등²⁴⁾은 다시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과 Modified Widman flap두 술식을 복근치와 단근치로 나누어 6.5년간 비교하였을 때, Modified Widman flap 술식이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에 비해 복근치보다 단근치에서 약간의 치주낭 감소를 가져왔으나, 치아형태에 따른 두 술식간의 임상적인 치주부착의 증가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우리들의 조사결과는 예후불량 치아에서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과 Modified Widman flap두 술식간의 치료전후 치주낭 깊이 차이와 치주부착 회복량을 비교하였을때, 위의 보고와 비슷하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을 사용한 경우에 그 변화정도가 Modified Widman flap술식보다 큼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 조사가 치료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로서는 조사기간이 비교적 짧았지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예후불량 치아의 치료방법으로써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의 사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의 환자들은 치조골의 흡수가 비교적 단시간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잔존 치조골을 가진 노령층의 환자들보다 그예후가 좋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그러나 우리들의 조사에서 연령에 따른 치료전후 치주낭 깊이, 치주부착치, 치아동요도 그리고 평균 유지기간과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약한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적으로는 젊은 연령층에서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것은 치주조직의 치료후, 치조골의 회복능력이나 예후에 있어서 연령이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을 치료할 때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되므로 예후불량 치아의 발치는 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치주적으로 “예후불량” 혹은 “예후의문”이라고 진단된 치아를 유지하고 치료하는 경우에, 이 치아의 발치율은 유지관리기 동안의 환자 협조도 등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McFall등⁸⁾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처치를 받고 15년 이상 유지관리를 해 온 100명의 환자에게서 “예후의문”으로 진단된 치아의 발치율이 유지관리 과정에 협조도가 좋은 환자에서는 낮았다고 보고

하였다. Hirschfeld와 Wasserman²⁶⁾은 “예후의문”치아의 운명에 대한 반응은 군간에 차이가 있으며, 총 666개의 상실된 “예후의문” 치아에서 단 17개의 치아만이 유지관리 과정에 잘 협조한 군에 속하였고 보고하였다. Wilson등²⁷⁾은 5년간에 걸친 조사에 유지관리에 협조도가 좋은 군에서는 발치된 치아가 없으며, 협조도가 낮은 군에서는 14%의 발치율을 보고하였으며, Wood등²⁸⁾도 위의 보고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은 치아상실과 유지관리의 협조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들의 조사에서는 표본의 크기와 조사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위의 조사결과들로 보아 치료후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예후불량 치아들의 발치율과 관련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치료후 치아동요도의 감소는 바람직한 결과로 생각되는 반면, 동요도가 증가된 치아는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²⁹⁾. Kerry등¹⁶⁾은 잘 계획된 조사에서 치주낭제거술, 치은연하소파술 Modified Widman flap술식 그리고, 치석제거술이 치아동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결과는 각 치료의 술식에 따른 치료전후의 치아 동요도나 술식간의 동요도 비교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장기간에 시행된 3개월마다의 전문적인 구강관리로 치아 동요도가 약간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들의 조사에서도 치료전후, 혹은 두가지 술식에 따른 치아 동요도의 차이는 없으며, 계속적인 구강관리에 의한 차이도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예후결정에 있어서 치아의 동요도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해 왔으나, 발치의 기준으로서 치아의 동요도는 어디까지나 경험적이었으며,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동요도가 3이상인 8개의 치아중 3개의 치아는 발치되고 5개의 치아는 저작에 불편함이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치아의 동요가 심하더라도 발치의 기준은 저작시의 불편에 두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치아 동요도 개선을 위한 치료방법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정확한 임상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예후가 불량한 치아도 치료후 장기간 잔존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능성이 없는 치아들의 잔존치열에 대한 영향과 이 치아들의 존속을 개선할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치주포대에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이 치주 수술후 초기창상치유기에 미치는 영향

한수부 · 이인경 · 김원경 · 문혁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학교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우리들의 연구 결과는 치주포대에 함유된 클로르헥시딘이 임상변수의 개선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함을 보였다.

치태와 치은염의 감소에 미치는 클로르헥시딘의 효과에 있어서 단기간의 연구에서는 치태와 치은염을 평균 60%감소시키며²⁶⁾, 장시간의 연구에서 치태를 평균55% 그리고 치은염을 45%감소시키는^{6,7,27)}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보인다. 최근에 치주전문의사가 수술후 창상부위의 치태형성을 억제하고 창상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클로르헥시딘을 함유한 치주포대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Plü¹⁹⁾등은 클로르헥시딘 가루가 포함된 치주포대를 임상치관부의 하방부와 부착 치은에 4일동안 두었을때 클로르헥시딘이 포함되지 않은 치주포대보다 치태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과는 실험군(클로르헥시딘 포함 치주포대군)과 대조군(클로르헥시딘이 포함되지 않은 치주포대군)간에 치태지수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Plü¹⁹⁾등의

3. The mean root surface area was 81.55mm² for the mesiobuccal root, 50.38mm² for the distobuccal root, and 73.72mm² for the palatal root. The mean mesiobuccal root surface area was wider than the mean palatal root surface area(P<0.05).
4. The mean surface area of the root trunk was 152.23mm² and averaged 42.54% of the total root surface area. It was wider than the mean surface area of each roots.
5. The coronal 6mm area of the root length accounted for approximately 52.14% of the total root surface area.
6.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st measurements comparing with maxillary first molar, but in RSA of distobuccal root the value of maxillary first molar was higher than maxillary second molar(P<0.05).

The long-term evaluation of retained “HOPELESS” teeth after treatment

Soo Boo Han, Youn Joong Kim, In Kyeong Lee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Oral Diagnosis,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eeth considered periodontally “hopeless” are often extracted overzealously in the dental off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ponse of the retained “hopeless” teeth to the periodontal therapy.

Thirty-eight teeth in twenty patients, 13 males and 7 females, diagnosed as periodontally “hopeless” had been treated by either of the following treatments. Twenty-two received scaling and root planing alone and sixteen received flap procedure plus these therapy. Measurement of clinical parameters such as probing depth, loss of attachment and mobility were obtained at the initial examination and at the time of re-estimation. At the time of re-estimation the retained “hopeless” teeth exhibited significant reduction in probing depth(P<0.001) and gain of attachment(P<0.05) when compared with those of initial examination.

The only variabl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clinical parameters was the age of patients. Twenty-six(68%) of thirty-eight “hopeless” teeth were functioning efficiently without pai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treat periodontally “hopeless” teeth successfully and the effect of therapy on improving the maintenance of “hopeless” teeth should be further studied.

Effect of chlorhexidine on early healing phase after periodontal surgery under periodontal pack

Soo Boo Han, In Kyeong Lee, Won Kyoung Kim, Hyock Soo Moon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plit-mouth double-blind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s of periodontal packs with